

신상품 개발에 얹힌 숨은 이야기(시리즈-7)

- 정전기를 이용한 “잔털이 적은 실” -

“컴팩트(compact)”라는 말이 업계의 관심을 끌자, 요즈음 “컴팩트”란 이름을 붙인 엉터리 상품이 넘쳐흐르고 있어, 여러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.

컴팩트사가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이 실로 만든 천이,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, 이와 같은 붐(boom)에 약삭빠르게 편승하려는 회사가 늘어나, 경사또는 위사만 컴팩트사를 사용하여 “컴팩트”의 혜택을 보려는 직물도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.

시끼보는 그럴수록 한층 더 ‘Made in Japan’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하여 금년(2002년) 2월에 그 동안 개발해 온 잔털이 적은 실을 “LS-Y”라는 상표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.

시끼보의 상품개발부는 “시끼보가 개발한 LS-Y 면사는 수입 컴팩트사와 비교하여 품질에 전혀 손색이 없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면사”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.

정방기에서 기계와의 마찰에 의하여 면섬유에 생기는 정전기를 조절함으로써 잔털이 극소화된 면사 개발에 성공하였으며, 도야마현(富山縣)에 있는 직영 방적공장내의 링정방기 8만 5천추 중 200추(1대)를 LS-Y 면사 생산용으로 개조하여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다.

LS-Y 면사는 정방기에서 방적 후 모든 로트(lot)에 대하여 “F-인덱스 · 테스터(F-index tester)”로 잔털의 수를 측정, 실 10m길이에 잔털의 길이가 1mm 이상 되는 것이 300개 이하, 3mm 이상이 50개 이하되는 실만을 “LS-Y” 면사로

출하하고 있으며, 실의 품질에 대한 우위성(優位性)을 직물에서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기 때문에 실만의 판매는 아직 안하고 있다고 한다.